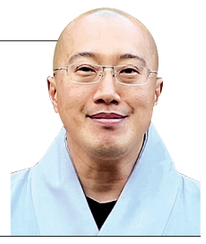
현불논단

마음대로 살아보기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불교 수행 토대로 삼을 것은 '心'
'심즉시불' 등 마음 중시 표현 多
원효 '일체유심조'도 마음 가르침

마음, 현 상황과 현상 비추는 모습
그래서 마음은 緣起 · 因緣이기도

마음대로 사는 건 인연관계 살피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다음 준비하는 모습이다

불교에는 여러 가르침과 경전들이 있다. 각각이 추구하는 수행의 방침과 방법 또한 여러 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불교의 다양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맞는 길을 제시하는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양함에 의해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 속에 서로 다른 수행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이처럼 불교의 다양함 속에서 불교라고 정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정답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보편적으로 삼보(三寶)인 '불, 법, 승'을 불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의 정의에서 수행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마음(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상좌부, 대승 등 여러 불교의 교리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불교의 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한국불교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가르침이 '심즉시불(心卽是佛)' 바로 '마음이 부처'라는 표현이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창조주이며 절대자인 '신(神)'의 존재를 두고 있지 않다. 천계(天界)에 사는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본래 육도윤회의 하나인 '천(天)'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창조주인 '신'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불교에는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렇기에 원효 스님이 동굴인 줄 알았던 무덤에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라는 게송을 말하고 마음을 확인하여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다.

'마음을 바로 봅시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등 유독 불교에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마음대로 살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상을 그대로 비추는 모습이다. 그래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기도 한다. 즉, 마음은 나의 매 순간의 모습이며 그것이 생겨난 원인이고, 그것에 의해 나타날 결과이다. 이러한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 연기(緣起), 인연(因緣)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이고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연기법이 바로 마음의 모습이다. 그렇기에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인연관계를 살펴보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인연은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이다. 앞서 했던 행동, 말, 생각이 원인이 되어 다음으로 이어져 자신에게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을 인과(因果)라고 하는데 자신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자신의 이전 행동에 의해 생겨난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른 이의 탓을 하거나 다른 원인을 찾으려 한다면 어디에서도 그 답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마음에 집착해 있다면 다음 순간에도 이미 지나간 마음만을 붙잡고 있기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는 매 순간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 그 안에서 마음은 붙잡아 둘 수 없이 변해간다. 이런 인과와 시간 속에서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미 저 멀리 지나간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고 곧 다가올 자신의 모습을 한 조각도 내다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 마음에 '내(나)'라는 한 글자를 조금은 지워야 한다. '내 마음'이 아닌 '마음' 그대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내 주변이 보다 선명해질 것이며 나를 둘러싼 수많은 인연의 감사함이 보다 느껴질 것이다. 이때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어느새 한 달이나 지나간 2023년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보시길 바란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집착은 괴로움이다

우리를 괴로움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주변사람들과 사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집착 때문입니다. 즉 괴로움이란 우리가 집착하는 고통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 또 즐겁다거나 괴롭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 집착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 사랑하고 기뻐하며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소유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집착한 나머지 물질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물질이 '나의 것'이며 영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물질이 변하거나 달라지면 그 마음도 변하고 달라져 두려움과 번뇌가 생기며, 자꾸 돌아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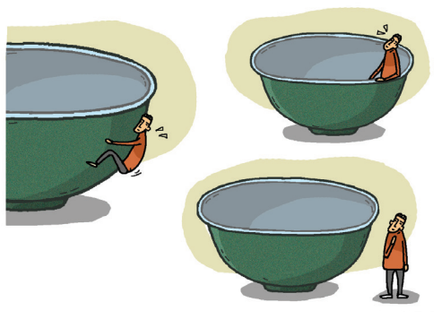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만큼 괴로움도 컸을 겁니다. 시계, 휴대폰 등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물건보다는 집착하는 마음이 상처가 되어 더 괴로워했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 집착하거나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곧 '나'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 사랑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소유하더라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물질이 변하거나 달라지더라도 두려움과 번뇌도 없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은 강한 소유욕을 나타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귀중한 것도 언젠가는 나에게서 떠날 수 있음을 알기에 크게 괴로워하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낡고 부서지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무상(無常)의 법칙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물질이 덧없는 것임을 알고 끝없이 변하는 것을 안다면 괴로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자신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와서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밝아집니다. 집착의 고삐를 놓으면 언제나 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스님 전문 요양병원에 거는 기대

故 각현 스님의 연꽃마을 설립으로 시작돼 2008년 개원, 불교계 대표 요양기관으로 성장한 의료법인 인덕원의 파라밀 요양병원이 조계종이 직접 운영하는 스님 전문 요양병원으로 탈바꿈된다.

인덕원이 1월 30일, 요양병원을 조계종에 아무런 조건 없이 희사하면서 조계종 최초의 스님 전문 요양병원이 탄생한 것이다.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 제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으로 기대를 모은다.

종단 직영 요양병원은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핵심공약이었다. 종단은 당초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성운 스님의 희사로 종단 직영 요양병원을 예상보다 빠르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운영에 나섬에 따라 법인 이사장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맡는다. 이사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중앙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추천 스님 등으로 구성됐다. 명칭도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으로 전환된다. 스님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물 리모델링이 끝나면 최대 198병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종단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요양병원에서 장례와 다비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요양병원 설립은 종단의 숙원과제였다. 때문에 성운 스님의 큰 뜻 덕분에 종단 승려복지가 10년은 앞당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병원을 통해 스님들이 노후에 승가의 위의를 지키면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전문화된 승려복지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설립자 각현 스님의 숭고한 정신도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 또한 '승려복지 강화를 통한 승가공동체 안정화'라는 제37대 총무원 핵심 종책사업도 탄력을 받아, 한국불교의 위상도 높아지길 기대한다.

계층포교 활성화 위해 뛰자

한국불교의 신도 연령 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다. 노인층이 많고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어린이 · 청소년, 청년 등 계층포교의 붕괴가 가져온 결과물이다. 사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는 단기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도 꾸준히 투자해야 진성 불자 한 명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활동하는 스님들도 있지만,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현재 "미래세대 포교와 전법에 한국불교 중흥이 걸려있다"면서 여러 사업들이 발표되는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불교의 노력들이다. 조계사는 계층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사 어린이 ·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 사찰 단위에서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창단 · 운영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조계사는 지난해 바이올린 연주자 17명을 선발한데 이어 현악 · 금관 · 목관 · 타악기 연주자 총 42명을 선발해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계획이다. 첫 목표는 가을에 열리는 조계사 국화축제에서 공연하는 것이다.

조계사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명상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점심먹고 명상 어때' 역시 30~40대 직장인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한 방편이다.

조계종 포교원과 상월결사는 대학생 전법을 위해 협약을 맺었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계종 전법단도 분야 전법 활성화에 올 한해 진력키로 했다.

불교계 전반이 '포교 · 전법'을 위해 한 목소리로 움직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불교중흥의 성패는 포교 · 전법에 있음을 알고 전 사부대중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